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米穀의消費量

一

米穀을常食으로하는 社會에잇서서는 米穀消費量의 多寡增減이 直接또는 間接으로 그社會의 繁榮과 衰退를 象徵하는 한"바로메터"가된다고하여도 過言이 아니다。米穀의 一人當年消費量의 增減을가지고 生活水準을 測定하여보려고하는論이 學界에서 肯定되게되엿다 卽換言하면 男女老幼를 勿論하고 一年間에消費하는 米穀의 平均量이 얼마나되며 또그消費量의 累年比較로 增減의 趨勢가 어떠한가를 보아서 그米穀을 消費하는 大衆의 生活水準이 어떠한가를 決定하려는것이다。卽 이平均一人當年米穀消費量이 增加되면 消費大衆도 貧에서富로 向하는것이요 이것이 逆行하면 富에서 貧으로 向한다는것이다。이것이 事實이라고하면 米穀의 消費量은 生活程度를 재이는 한 尺度가 되는것이다。

二

朝鮮에서의 米穀消費量은 當局에서 發表한바를 조사보면 大正元年度에 一人當消費高가 七斗七升二合四勺이엿는데 五年을經過한 大正六年度에는 七斗二升이엿고 또大正十年度에는 六斗七升六勺이엿스며 同十五年度에는 五斗三升二合五勺이엿다 그리고 昭和五年度에는 四斗五升八合이엿고 또同十年度에는 三斗八升四合으로 激減되엿다 그리하여 昭和十年度分을 大正元年度分에 比較하면 約倍가 減少되엿다 그리므로 萬一 米穀消費量多少가 生活水準을 正確히 表示하는것이라면 朝鮮社會의 生活水準은 二十年間後의것이 二十年前의것에 比較하여서 理論上으로 二分之一로 低落되엿다고 볼수잇다。

三

이米穀의 一人當消費量은 內地에서는 每年平均 一石一斗를中心으로 波動하면서 거이水平線을 數十年間 그어왓고 또朝鮮에서도 內地人의 米消費高는 亦是 一石一斗를 保合하여왓다고 한다。그리므로 一人當米消費量의 減少는 朝鮮人間에 特有한 現象이엿던것을 알수잇다 近年朝鮮大衆層의 食卓에 滿洲粟이 漸次 米穀을 代位하게되고 朝鮮人의八割을 占하는 農民들은 그들의 生産物이요 高價인 米穀을 放賣하야 廉價인 粟을 買入하야 代用하므로써 生計를세워왓다함은 大正元年度에는 粟及大小麥其他雜穀類의 年一人當消費高가 一石一斗八升二合八勺이던것이 昭和十一年度에는 一石二斗六升七合七勺으로 增加된 事實에비추어서 잘알수가잇는것이다。

四

그런대 五月一日現在殘存米穀調査表에 依據하여보면 昨年十一月부터今年四月까지 六個月間에 잇서서 米穀消費量은 一人當五斗三升餘로 增加되엿고 또昨年同期에比較하여보면 約七升이增大되엿다고한다 今年度後半個年의 消費量의 多寡는 이를豫測할수는업스나 그러나 大體로 增大될것만은推想하기가 어렵지아니한바이다 그러면 數十年을두고 落調를示現하여오든 米의年一人當消費高가 昨年來로 漸次擡頭上昇하는 것이라고 할수잇겟지마는 이傾向은勿論 事變關係도잇다 昨年의 豐作影響과 近年의 米價高에伴하야 農民大衆의 經濟生活이 好轉된것은 否認하기 어려운바인즉 米穀의一人當消費高도이와가티 好轉되여서 生活의一般水準도 漸次로 向上되는 一般도 生活水準의 向上을 實現하야 努力하여주기를 바라는바이다。

南北兩軍挾擊으로 徐州運命風前燈火

敵後方連絡完全遮斷

【○○十四日發同盟至急報】 멀리徐州戰線의 背後로 迂回하야 北進하는中인 岩仲快速部隊는十四日 午後三時頃 마침내 ○山附近에서 隴海線을爆破切斷하야 敵의西北에로의 退路를遮斷하엿다

【上海十四日發同盟】上海軍十四日午後四時發表 岩仲部隊長이 指揮하는 諸部隊는 隴海線으로向하야 銳意北進하는中이든바 今月十四日 午後三時 碭山東北地區에 進出하야 卽時鐵道를爆破하고 敵의後方連絡線의 唯一한鐵道를 完全遮斷하엿다

【上海十四日發同盟】岩仲快速部隊는 마침내 隴海線에到達하야 汪集鐵橋爆破에 成功하엿다 이것으로 隴海線은 完全遮斷된셈인데 鐵道輸送에依한 敵의 退却路線을 完全切斷하야 徐州를 全然孤立無援에 陷入케하엿는바 玆에我軍은 徐州의包圍陣을 完成하게되엿다 이리하야 第一線과 後方이 切斷된 徐州의運命은 我南北兩軍의 挾擊을바더 潰滅되고 四分五裂에 陷하게될런지 或은 我軍門에降服하게될런지 二途中하나를 남겻슬뿐이다

【○○十四日發同盟】陸軍飛行隊大久保中尉는 我地上部隊에依하야 隴海線汪集鐵橋의大爆破를十四日 午後三時十八分 空中에서 確認하엿다

隴海線을爆破遮斷

黃河를敵前渡河

南進部隊도勇躍隴海線에殺到 金鄕、魚台線을突破코

【北京十四日發同盟】十四日午後四時軍司令部發表

一、黃河北岸에서 待機하고잇든 我軍은 五月十二日正午 山東省西端의 濮縣附近에서 大黃河의敵前渡河를 敢行하야 十四日午前八時頃 曹州附近의敵旣設陣地를 一擧에 攻略하엿다 그리고五月九日 濟寧附近에서 進發하야 湖西地區를南下한我軍은 到處에서 敵을擊破하면서 南進하야 十四日午前金鄕魚台線에잇는 敵의 旣設陣地를 突破하야 大打擊을 與하엿다 右兩部隊는 苦熱을 무릅쓰고 勇躍前進 隴海線을 殺到하고잇다

二、津浦線以東江蘇省境에 잇서 我軍은 優勢한敵의 堅陣에對하야 諸要點을相次로 攻略하고 漸次敵右翼을 壓迫하고잇다

敵最後攻勢인 徐州會戰臨迫

【北京十四日發同盟】蔣介石、李宗仁이가 萬軍의 精銳를모라 對日決戰을 豪語하는 徐州會戰은 我南北軍空前의 規模로 包圍態勢를 完成함에따라 其歷史的決戰期에入하야 緊迫된空氣는 攻又江蘇、山東、安徽、河南四省에더펴잇다 徐州會戰의 意義에 對하야 現地關係方面에서는 特히次의點을 强調하야 大會戰을 重大視하고잇다

一、徐州會戰은 蔣介石의 萬軍掉尾의 組織的最後의 對日攻擊態勢로 이會戰에서壞滅的打擊을밧는다고하면 蔣介石의 抗戰能力이 喪失될것이다 假令徐州에서 敗退하고 漢口地方에서 抗戰을試驗한다고해도 客觀的情勢는 그에 대하야 徹底的으로 不利하게되고 그리고 只今까지 津浦方面에서放送하든 萬軍의大勝때마는 徐州敗戰의 事實로 全然粉碎되어 內外의 信用을 失墜하게될것이다

一、萬軍의 抗戰力은 徐州會戰에서 決定的打擊을 蒙하야 蔣介石의 統制力은 益益 微弱化되고 軍閥의反蔣運動이 더욱 表面化하게될것이다

一、徐州會戰은 萬軍의 潰滅에 拍車를더하야 蔣介石政權의根底에 徹底的打擊을 與하는結果 津浦線의 開通으로 南北兩政權의 合流를促進하야 其結果로 强力한 一大政權의外成이 促成될것이다

寫眞 上 北上部隊의猛進擊 (張子台附近에서) 下 廢墟로化한沂州城內

八千大軍을擊破코 盧山으로猛進擊

盧州陷落도目睫에迫到

【○○에서十四日柴田同盟特派員發】○○部隊의 精快를 極한奇襲下에 蹂躪된 黃山及四方山은 廬州中間淮南鐵道에 沿하야 屛風과가치 屹立하여잇서 ○○部隊는 十一日四方山에서 二千의敵을 包圍殲滅하고 十二日에는迫擊砲를가진 黃山山頂의 六千의敵을潰滅하엿다 어가려하야 ○○部隊가 目標하는 廬州를呼間에肉迫하야잇다 廬州는蕪湖南京退路를連絡하는交通上의 要點일뿐만아니라 敵의게리라 戰術의 策源地이엿다 이廬州도 바야흐로皇軍의猛擊에 어느듯陷落되려하고잇다

【上海十四日發同盟】十四日正午上海軍發表 廬州方面에서作戰中인 ○○部隊는 十二日 黃山四方山(廬山東方五里)附近의地點에 依據하야 頑强히抵抗하는 八千의敵에 徹底的打擊을주고 廬山을 向하야 前進中이다

海州方面敵軍 이미退却準備

【上海十四日發同盟】我山東省南下部隊는 郯城으로부터 急速히新安鎭에 迫到하야 隴海線을衝하는同時에 阜寧에잇는 佐藤部隊의 北上準備가 完了되엿다는報道로 海州方面에잇서敵軍의 動搖는頂點에達하여잇다 外電에依하면十四日朝來 海州方面에잇는支那軍은 計畫的으로 海州의 港灣施設을 破壞하고 海州 新安鎭의 道路橋梁을 破壞하면서 退却을準備하고 잇다한다 그러고海州를 守備하는 敵軍은 五十七軍長繆澂流가 指揮하는 百十二師、百十六師等이다

奔流가티急追擊

【鄆城十四日發同盟】十二日未明大黃河를渡河하야 歷史的成果를 收한○○部隊는 남다른 征矢와如히 急進하야 旣設陣地에依하야抵抗을 試驗하는敵을 대번에擊滅하고追擊 十四日午前一時마침내曹州附近의敵을殲滅하고 敗殘兵을奔流와가티急追擊하고잇다

人事·集會

▲田中武雄氏 北支視察中十四日入京朝鮮호텔投宿十五日六時半有志主催로明月館서歡迎會開催

○○部隊曹州占領

南下主力大擧黃河渡河

【石家莊十四日發同盟】果敢한黃河敵前渡河에 成功한我○○部隊는所在의 敵을擊破하고 一擧에 四十粁를 突破하야 十四日早朝敵의 最大據點曹州를 占領하고 城壁에 日章旗를 飜하엿다

【石家莊十四日發同盟至急報】我○○部隊는 大黃河渡河準備를完了하고 마침내 渡河附近에서 十一日 ○○部隊의 渡河에 成功한것을 契機로 目下○○及 ○○方面에 大擧渡河하야 黃河全正面으로부터 大擧渡河隴海線을 遮斷하려하는 態勢를取하고잇다

海軍航空機七十臺 徐州大空爆敢行

爆彈五百餘個를投下

【上海十四日發同盟】十三日地上作戰部隊와 呼應하야 我海軍航空部隊에 大擧徐州攻擊命令이나려 棚町、岩城의各隊는 ○○基地를勇躍出發 戰雲濛濛한 徐州를 指目하고 一直線으로 飛翔하야 棚町部隊長이 指揮하는 大小○○機七十臺는 徐州停車場에 向하야 一齊히 爆彈의 비를 퍼붓고 海荒鷲의자랑인 照準은正確無比하야 忽然停車場及附近에 集積한 軍需品置場으로부터 濛濛히黑煙이 이러낫다 이에爆擊隊는 第五日戰鬪司令部로 指目되는 警戒嚴重한 建築物을 指目하고 숨쉴사이도업시 爆彈을 一齊投下한바 實로 合計五百餘個의 大小爆彈은 徐州一帶에 부칠場所도업스리만치 炸裂하엿다 岩代大尉가指揮하는 一隊는 이때徐州東方의 徐唐集運河畔에 百數十彈을投下 同車站을 完全爆擊하고 全機凱歌裡에 勇躍歸還하엿다

海軍活動狀況

【上海十四日發同盟】十四日午前十一時 艦隊報道部發表 昨十三日 海軍은 左의活動을하엿다

一、津浦線隴海線方面 陸軍作戰에 協力한 我海軍航空隊는

一、棚町少佐가引率한 大小爆擊機 戰鬪機 合計總數七十餘機로써行한 徐州大空襲及岩城大尉가指揮하는 部隊는 運河車站의 攻擊을敢行하엿다

가、棚町少佐가引率한 七十餘機는 훌륭한編隊로써 徐州北停車場에 集結한 百數十輛의 軍用貨車群及 集積軍需品置場 施設線路에 對하야 數百彈으로써 徹底的爆擊을實施한바 爆擊에依하야 破壞된貨車、軍需品의四散되는것이만히스며 또火災를이르켜猛烈히炎上하는等數個所에實로潰滅的損害를주엇다

나、岩城大尉가指揮하는 部隊는海州、龍鄕、長汀各飛行場을爆擊하엿스나敵機를보지못하고 飛行場及所屬施設을爆破하엿다

二、廣東方面에서는 粵漢鐵路及廣九鐵路及天河飛行場의 攻擊을實施하엿다

가、粵漢鐵路曹江口南方貨車群及線路를爆擊하고 線路數個所에多大한損害를주엇다

나、廣九鐵路石龍驛附近을爆擊하야 驛建物及附近線路에對하야 極히 큰損害를주엇다

다、天河飛行場夜間攻擊隊는飛行場及兵舍를 爆擊하엿다

防陣蜿蜒八百里

바야흐로潰滅에直面

【北京十四日發同盟】蔣介石이가 民國廿四年以來 營營히 싸허온 海州로부터 歸德까지 蜿蜒八百里에 亘한 國防陣地도 이제는 潰滅의 危機에 瀕하야잇다 敵의行하고잇는 誇大한 때마침放送때문에 迷惑된 全世界의視聽아며 이제야말로 日本軍의健在하고 巨大한 姿勢를 나타낼때가와다 十二日未明濮縣附近에서 黃河渡河에 成功한 我○○部隊는 十四日 曹州를 攻略하고 그리고 湖西地帶를 南下하는 ○○部隊는 同十四日午前金鄕 魚台의 線을 突破、敵이西隴海線의 前衛陣地로서 數年을 費한 曹州、金鄕、魚台를突破하고 旣設陣地를目標한 隴海線을百五十里乃至二百里의 近距離에 肉薄하엿다 一方 津浦線南端을 前進北上中인 我軍은永城을 占領鞏固의 態勢도 날카롭게 이미 碭山東方에서 隴海線을 遮斷하엿다 東隴海線의 我軍은 台兒莊、胡山線으로부터 西方으로向하야 刻刻으로 戰線을 壓縮하고잇다 敵戰線의中心徐州는 孤立의 運命을 目前에두고잇다 어리하야 蔣介石이가意圖하는 戰局의 現狀維持에依한 對外的作用의 期待도 玆에消滅되여 徐州大會戰은 數十萬의 大軍을 一網打盡하는 副産物을 伴하야 進展하고잇다 今次事變最大의 意義를가진 徐州도終末에 가깝게되엿는바 我軍은 北中支連絡이라는 歷史的巨步를내여디디려하고잇다

政友及小會派

大陸國策遂行에邁進

【東京電話同盟】오래동안 沈默을지키고 잇는 政友會及小會派(新昭和會國民同盟 東方會第二控室)의 所謂新黨派인 革新分子는 今回大陸國策研究會를 名稱으로 擧國一致體制下의 大陸國策遂行에 必要한 各般의 政策을調査研究하려고 軍部官界財界政界各界에 亘하야同志를糾合키로하엿다 小會派에서는 十四日正午丸內會館에서 政友會側은 同夜赤坂錦水에서 各其準備委員會를 開하야 協議한 意見의交換을行하고 다시十六日政友會小會派準備委員의 聯合會를 開催하야 今後의 運動方針에對하야 協議를 行하기로되엿는바 右는널리 大陸國策研究會를 土臺로하야 國家主義革新政黨樹立에의 發展을 企圖하는것으로 過般來民政黨의 同志에對하야도 勸誘하엿든바 確實한態度를보이지안엇스므로 爲先政友會와 小會派와의 革新分子에依하야 準備委員會를開催하엿든것이다 民政黨에對하야는 今後機會잇슬때마다 參加를勸誘할方針이다 또社會大衆黨에對하야 國家主義制度樹立을 目標로하는立場에서 積極的으로 勸誘하지는안키로되엿다 그러고 大陸國策研究會는 所謂新黨派가 企圖하고잇는 新黨樹立에까지 發展될는지 어떨는지는 今後의同

陸軍까솔린節約

【東京電話同盟】[illegible] 陸軍의까솔린消費를 [illegible] 目的하는바이다

一、[illegible] 自動車用燃料는[illegible] 節約하기爲하야 [illegible] 에서는 [illegible] 平時部隊 各官廳 學校에서 燃料節約을硏究中이엿는데 드디어 다음과가티 實施하기로決定 十四日 陸軍一般에 通達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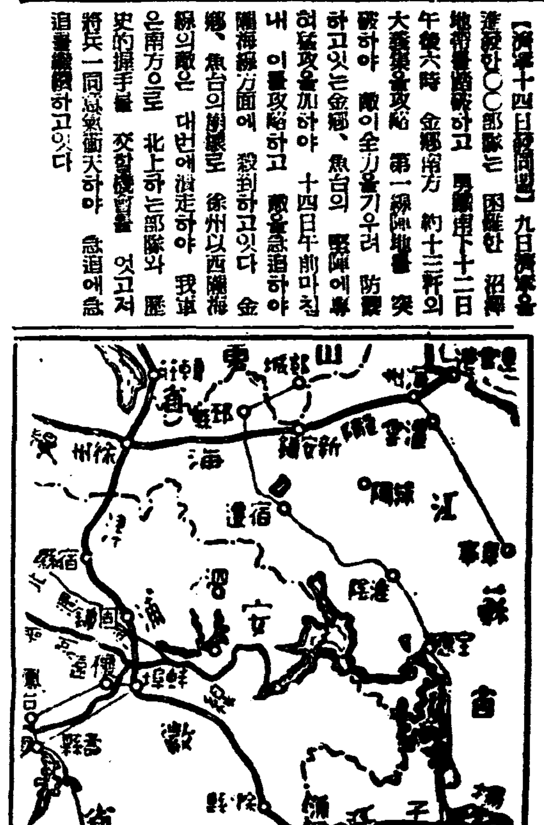
一、[illegible] 燃料의消費를節約하기爲한 이외의것은 되도록節約할것

一、軍用以外의 燃料節約에對하여서는 [illegible] 部隊에서 軍用以外의 [illegible] 說明할것

金鄕魚台攻略

我將兵意氣軒昂

【濟寧十四日發同盟】九日濟寧을 進發한○○部隊는 困難한 沼澤地帶를踏破하고 勇躍南下十二日午後六時 金鄕南方 約十三粁의 大義集을攻略 第一線陣地를 突破하야 敵이全力을기우려 防禦하고잇는金鄕、魚台의 堅陣에 猛攻을加하야 十四日午前마침내 이를攻略하고 殺到하고잇다 金鄕、魚台의崩壞로 徐州以西隴海線의敵은 대번에潰走하야 我軍은南方으로 北上하는部隊와 歷史的握手를 交할機會를 엇고저 將兵一同意氣衝天하야 急追를繼續하고잇다



總額二十五萬圓·新春大景品附大特賣!

百補丸한제사면

발재봉틀、純金時計줄、황소、삼칭자개장 백동칠첩반상긔、자전차등을타게된다

勿失好期! 只今이百補丸服用의最好期

●大補元氣 補血强壯劑로京鄕各界 貴族名士를爲始하야 滿天下服藥家諸位의 絕大한 賞讚과 愛用을밧고잇는 百補丸은 事實! 朝鮮藥業界有史以來 最高賣上의 超記錄을突破하고잇슬뿐아니라 百補丸이 天下無敵의 大强壯劑로世界各國에까지 輸出되는것도 오직 그處方이神秘하야 누구에게든지 그効力이卓越하고 뚜렷하게나는까닭입니다

過色 過飲 過勞로因한 早老와虛弱엔 百補丸以上이 다시업습니다

男女老少를勿論하고

▲元氣가 不足한분 陽氣가衰弱하는분
▲胃腸이弱하고 口味와 食慾이업고 飲食消化가 안되는분
▲神經이衰弱하고 記憶力이減退되는분과 肺가弱하고 貧血症이잇는분
▲手足과 下초가冷하고 筋腰痛이잇는분
▲過飲過色人、咳嗽가잇는분、活氣가업고여위고早老하는분은 卽時 百補丸을쓰시요 全身五臟六腑를 다完備합니다

●只今百補丸을服用하면 藥効도 잘날뿐아니라 二重으로 大景品을타게됩니다 더욱이 空籤은一口도無하므로 大景品은누구나 다타게되며 等外賞까지라도 一、二等賞과 對等의價値잇는 珍貴品을 進呈하는 公平한特別式 景品特賣입니다 이런機會에 効力조흔 百補丸을쓰시요

봄철에 百補丸을服用하면 効力이倍勝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一劑十圓

勿驚! 朝鮮初有의大景品
景品만總額八千九百八十圓
●누구나타는大景品種目

特等	一人	足踏裁縫機(발재봉틀)一臺
一等	二人	純金時計줄(男子用 和信製品)一組一式
二等	五人	黃牛一頭、三層자개장、十八金腕卷時計 高級大型洋服地、大型鍮鐵重金庫中一品
三等	二十人	自轉車一臺、純白銅七隣盤床器一式 電氣時計(大型掛壁用)ラヂオ(四球)中一品
四等	一百五十人	卓上時計、緣付鏡鏡、毛布(요)、家庭用 私設燈一式中一品
五等	三百人	洋傘、世界一週萬年筆中一品
等外	全部	栗谷先生、金玉均先生、靑田先生等의額 畫屛風書畫一組式

特等으로부터 等外까지全部當選、空籤은一口도無함 等外도全部珍貴賞品

特賣規定
▲百補丸一劑注文하시면 景品券二枚式
三劑共同注文하시면 謝禮品一劑無料添呈하는外에 景品券六枚를 進呈합니다
또 定價五圓마다 景品券一枚式의比例

特賣期間 自三月一日 至五月末日

當選發表 七月五日後本紙上에發表함

生男生女 天下待望의 世界的 婦人靈藥 一劑 七圓

부인자궁병냉병 경도부조대하증에 **婦人百補丸**

京城府堅志町五九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三二番·六二三三番·三三〇番·振替五番

人情佳話

血肉을超越한母性愛

주손子息기르다 제어미주고보니 前程이可憐하오 다시기르겟소!

寤寐不忘·養母의嘆願

자기집문전에다 버리고간 누구의 자식인지도 아지못할생후얼마안되는 어린아이를 가련히생각하여 거더서길너 호적에까지너흔후 친자식이상으로 애지중지해오던것이 버리고간 생모악귀와가튼 유기마(遺棄魔)가경찰의손에 잡히게되자 법률상어린아이의 이중적이 문제가되여 일단생모편에돌녀보내기는햇스나 날이갈수록 기르던정이새로워저서살어갈수가업스니 아이의장래도가엽고하니 생모에게주지말고 도로돌려줍시사——하고경찰에와서 매일파가티 눈물을흘니면서 애원하는 세상에도보기드문 인정미담이잇다

십사일 오전열시쯤해서 부내용산서사법계에 차림차림으로자점잔히보히는 중년부인한명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게원에게무엇인지 열심히애원하고 잇스므로그내용을 드러보니 어여자는부내봉래정(蓬萊町)사번지 김동윤(金東潤)씨의안해 박씨로 작년십일월구일이른아침에 대문울열고보니 생후얼마안되는 어린사내아이가 랍랍한보재기에 싸혀버리어잇스므로 곳이사실을 부근 김동윤씨에알니는동시에 누구의소행인지는 알길이 업스다생활난으로 기를수업서서 버린것가티 어린애신세가 불상히생각됨으로 거두어서 길너가기로의론이 되여 어래 자기집 호적에 다 너허 어름도 김명환(金明煥)이라고 계출하는 한편당당한 친아들로 길러왓는데뜻박게도 지난오월초하룻날 용산서에서 호출이와서 와보앗더니아이를 문전에 버리고 다닌난생모가 잡혓스니 법률상 이중호적은 허가할수업스니 돌려주라고 돌리기에 하는수업시 눈물을 먹음고 일단돌려는주엇스나 날이갈수록 가엽슨어린애의정상이 밥을을 이룰수가 업서법률상그러라고는해도 속귀와가튼 생모가 어린 명환이를 행복되게 기를수는업스니 돌려달라는 사연이여서 그인정의 아름다움에 편계게원으로서도 눈물짓지안흘수업섯스나 생모는방금유치장에잇스나 어린애는 벌써 생모측친척이와서 수원(水原)모처에 다려간후이니 하는수업다고 달래여도 양모 박씨는 듯지안코 그러면 수원에까지가서차저오는수밧게는 업다고하면서쓸쓸히 도라갓다.

그러데 어린이 김명환의 생모는 경북출생 한판칠(韓判七)의 처 피순금(皮順今)이라는사십에나는 여자인데 작년가을에고향을 도망해나와서 경성에온후 전기와가티 봉래정 김동윤씨문전에 친자식을 버린것을위시해서 여러차례로 다소의 보수를밧고서는 남의부탁을 밧고영아유기를 일삼어온 소위 편지부유기마인데 김동윤씨가 거두어서 호적에다 너흔 운명의어린이 김명환(金明煥)은 원호적에는 지금도 한창용(韓昌龍)으로 적혀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피순금의아들될것은분명하다

이 두 어머니중에서 누구가과연 참된 어머니인가는 법률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사연을들은 용산서로서도 양모의 가륵한 뜻을 저버리지 안코서 되도록 편의를 보아주려라한다

쌀갑시또올랏다

한"킬로"……평균오리식

쌀갑시 작고만 올라가서 도시소민 특히 봉급생활자에 일대타격을 주고잇는데 경성부공설시장에서는 십사일부터 정미원료와 현미(玄米)양동으로 갈등매『킬로』에 오리(厘)식을 또 올렷다 다마금등(多摩錦等)은 한『킬로』에 이십오전오리가되고 일등미는 이십사전에서 이십사전오리가되고 보통일등미는 이십삼전오리이던것이 이십사전으로 올랏다

현재 한백미(韓白米)시세는 제일조흔것이 한가마니에 도매가십사원구십전 십오원까지가는데 소매가격은 이보다 일 이십전더한다

『로타리』大會 今日부터開幕

국제『로―타리』제칠십구구 일천구백삼십팔년대회는 조선의 국제도시 경성에서 금십사일부터 개최하얏다 대회에 출석하는전국『로타리』안은『카배너』리견순길(里見純吉)씨를 위시하야 지명인사사백육십팔명의 다수에 달하는데 십삼일부터 십사일에 걸처서 가족동반으로 경성에도착하엿는데 모두조선『호텔』반도『호텔』동부에서 여관에 투숙하엿다 제일일인 십사일은오후네시반부터 조선『호텔』에서 간사회를열고 사무상타합을하며 간단하게 연구를할러이다

그밧게도 각개인의 제안에대하야 자유간담을하고 동아홉시밤에 산회하야 제일일의 일정을 마치리라한다

십오일은 조선신궁에 참배하고 오전아홉시부터 부민관에서 대회를 열기로되엿다

平壤大察里에 大火

【平壤支局電話】 십사일오전두시십칠분쯤 평양부대찰리(大察里)오십구번지 윤세식(尹世植)창고에서 불이나서 창고와 건물을전소하고 동세시이십분경에 진화하엿는데 손해총액은 약일만오천원이고 원인은전날밤 점원이창고에불겻을 가지러드러갓다가 불을떠러트린것이 물품에 올마부튼것갓다고 한다 또한 인측의손해는업스며 동창고는화재보험에가입치안햇다한다

同業每新記念事業 府民大連動會

동업매일신보사에서는 이번에 혁신기념의 의미에서 부민대운동회와 광고의장행렬의 이대행사를금십오일 부내 장충단(奬忠壇)공원에서 거행하리라하는데 부민체육대회에는 선수삼백여명이 출장하리라하며 광고의장행진에는 입상자에게 상의회두(商議會頭)기증의『컵』을 증여할터인데 이간에도여러가지의 여흥도 잇슬터이라한다

日曜講話

◇石橋敎會 午前十一時 海邊의人生劇 朴淵瑞 氏
午後八時 未定 韓熙文 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예수와母親 金鍾宇 氏
午後八時 未定 洪淳浩 氏
◇覺皇寺 午前十一時 佛陀의意義 朴聖權 氏

光州定期航空初乘記

本社 洪社會部長

小型機의愛嬌

空中하이킹의 悠長한氣分滿喫

人城의歡呼속에歷史的着陸

【全州에서洪鍾龍】 신록이무르녹은 오월의양광은 차연히은의(銀翼)에 눈부시게빗나도록 맑게개인 첫여름의창공에 지금나는기상(機上)의몸이되여 일천칠백미돌의 노픈상공에서 전원파산야와또는 서해안의 푸른바다를내려보면서 이에이전문(電文)을적는다 이날십사일은 신(愼)항공사업사에 의한광주(光州)까지의『로―칼라인』처녀 비행의깃거운날이다 정기항공(定期航空)으로 광주(光州)를 방문하는최초의 손으로서 이에 한가로운창공의 나그네가 된것이다 특히이날을 축복하는 뜻으로 또한대의 비행기가 어깨를가즈런히하야 날르는것이 마치 공중의『하이킹』이나하는듯십다 출발은 바로 오정때, 다수의전송을 바드면서『엔진』의 폭음도장쾌하게 수백미돌 비행장을활주하엿는가고 생각하엿술지음엔어느새 벌써 검분하게지상을떠올랏다 실로훌륭한 이륙(離陸)이다 비행기는 비록세사람이타는 소형기(小型機)라고 할지라도『콕컨』등 큰비행기와 조금도다를업시 동요가업고 타고잇는기분이아주 고만이라 오히려소형기의 경쾌하고『스마―트』한것이 재롱스럽다 이기(二機)가운데선두에날고잇는것이 신(愼)비행사의 조종하는것으로 언제던지내(洪記者)가타고잇는 비행기의원편아플서서 때로는 백메―터의간격을두고 나르고잇다 비행기창문으로 손을흔드러 보이면 저편승객의옷는얼굴까지가 분명히보인다 내가탄비행기의 조종은박(朴)비행사 객실에는 내한사람으로서 흡사히도맛던노흔것갓다

지튼 초록(草綠)의 일색으로전개되는 전원(田園)의 조망은아름다운 그림에 지지안타。

년전 대판풍수해적에 가을창공을 나르면서 연황색 바탕에진홍의 단풍이 수노여잇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본일이 잇스나 이번에는 오월벽공에 날개를 펴면서 멀리 열븐노을에차인 산천의 신록과 초록빗갈방석을 펴노흔듯한 보리밧——공중을 날지안코는 도저히 맛볼수업는 아름다운경치다

벌서 한시간동안이나 날넛다부수하산을넘고 평야지대에 드러가서 고도를 칙신나추엇다 나려다보니 밧파논은 축척으로그린듯이 반듯하게 펴처잇다 아마 큰농장(農場)들이 만흔전라도에 드러온모양이다 한시사십이분이러(裡里)에 착륙하얏다

◇

경성광주(光州)간의 정기항공로가 개척되는첫날, 십사일 신박량비행사(愼朴兩飛行士)의비행기를 마지하게되는 광주는이날이더시업는 명절날이엇다 비행기가 바로 광산군극락면(光山郡極樂面)비행장상공에이르러 오백미돌의 상공에서 내려다보니 비행장주위는 발부칠곳도업고근처의 산에까지 사람은 겹겹이둘리차이어 수만명일정도가아니엇다 선듯 보이는것이 길가에는 여기저기 천막이며 채일친꼿등 여러곳이 보이는데 이것은 떡장사, 국수장사 튼것인 모양이다 비행장상공을 일순하야 착륙하자 비행장 주위로 섬을싸코잇든 군중은 남녀로소가 물밀듯밀려드리와 경이의 비행기와 비행사의 얼굴을찻기에 눈이붉어젓다『야―저사람이다 저사람이 날아왓다』고생전에 처음보는 순박한 농군들은 현대과학의 신비에 접하는 감탄을 저마다 말하고잇섯다 겨우 군중을 약간 헤치고출영나온 전북 신패지사(新貝知事)와 광주 난파부윤(難波府尹)을 비롯하야 관민유지며 각종신관계자들이 양비행사에게 간단한 인사를하고 각방면으로부터 비행사에게 꼿다발과 기념품의 진정이잇섯는데 본사전남지사(本社全南支社)로부터도 어여쁜 어린두소녀를 통하야 꼿다발을 두묵금을 각히 양비행사에게 드렷다 두비행사도 다수의 열광적환영에 감격하야 얼굴이 벌개서 벙글벙글웃고만잇섯다 이어서 비행장한모퉁이에설비해노흔 관민유지들의 환영연이잇서 부윤의 환영사에 신비행사의 답사가잇고 만세삼창으로 환영연을맛치니 이로써 아직 현대과학의 세례를 고로밧지못한 전남에 우리의 우수한 양조인에 의하야 과학의 신영된것이다 과연 이날의 장관을 엇게보고서 수일전부터 인근각지에서 모혀드는 농촌노유와 부녀자에게는 이날이 다시 명절이 안을수업섯다

七萬群衆歡呼裡

兩飛行士에祝賀의花束贈呈

光州府初有大盛事

【全南支社長崔仁植發電】 경성、광주간 항공로처녀비행의 제일편기두에는 십사일오후두시삼십오분에 예정보다 약삼십분늦게 광주상공에이르러 일반관민의열광적환호속에 신설광주비행장에 착륙하얏다 즉시 신패본도도지사를비롯하야 각방면의화환증정이 신、박두비행사에게잇섯 특히 본보전남지사로부터도 축하의화환을 증정하얏다 그다음 두비행사를 주빈으로하야 광주부주최의 성대한환영축하회가열렷는데 어번 처녀비행을 축하하는 축사가잇슨뒤 잠간휴게하고 오후세시오십오분에 다시은익을날려 광주읍발부민에게 경의를표하기위하야 시내를한바퀴 저공비행을하고 유유히 기경을 북쪽으로 감추어 일로、경성에 향하얏다

이날 비행장에는 모혀든관중이 근칠만명에달하야 공전의성황을보혓스며 한편으로 대혼잡을이루어섯다 때마침 강한남풍이 불엇스나 비행날세로는 대단히 조화 일반관계자는 이처녀비행의 무사종료를 기뻐하얏다

本社方社長의 멧세―지 知事、府尹에게

기념할이날의 광주정기항공편에시승케된기자는 본사사장으로부터 전남도지사와 광주부윤에게각히『멧세이지』를휴대하고비행장에내리는길로 각히 두분에게멧세이지를 전하엿든바 이날의성사를 더욱뜻깁게하는 본사장의 멧세이지를바든두분은 서로 감사합니다 이리케 우리지방을위하야 감축한말슴을 보내주심에 감사를드리는동시에 귀사의발전과 귀사방사장의 건강을 아울러축하합니다 고말하엿다

午後五時半에 京城에歸還!

경성、광주간 항공로처녀비행의 귀환기는 이날오후세시오십분에 광주를떠나 동오시삼십분에 경성에 무사도착하야 조선공수사상려사적공헌을 끼치엇다

(사진은 광주비행장에 모혀든 관중의일부와 화환증정광경)

新聞空輸에 세번째先行

본사에서는 일직기항공(咸興)과 이리(裡里)의 항공로개척비행때에도 누구보다도 뛰여나게 신문공수를 시험하야 신속한보

本社方社長에게 新貝知事謝電

이번 처녀비행편에 본사사장으로부터『멧세―지』를 바든 신패 전남지사는 다음과가튼 감사전보를 즉일본사에 보내왓다

京城、光州間 定期航空路の開設を喜び 邦家の爲め祝賀の意を表し今日 其第一便にて御懇篤なる御挨拶を頂き感謝に堪へず 今後一層御鞭撻を願ふ

新貝 全南知事

총딱

오월의구직(求職)이란 우좁한것이다▲십년의적공에는 당자의노력도 노력이거니와 그뒤에숨은 부모의노력은 눈물겨운것이다▲벼와서 논밧을팔아밧친것은늘 나중에는 무엇이되려니 바라고잇섯건만…헛다▲어엽게거리가 태산처럼만허서 논나니엇게하소▲젊은 그들이마음이 오월의벗지런하늘처럼 명랑하게▲하나님께축수하나니다

曆

▲五月十五日(日曜)陰四月十六日 ▲干支丁未 ▲日出五時二十五分 ▲日入十九時卅五分 ▲日南中十二時卅分 ▲滿潮十四時十分 ▲月出二十時三十一分 ▲月入五時四十八分 ▲干潮(仁川) 六時와十八時

一流强拳動員한 比島對抗拳鬪豫選

今日各級決勝戰擧行

오는이십일일에 비률빈(比律賓)권투선발군을 마지하야 권투대항전을 열기로되여 그대항전에출상할 조선대표선수를 선발하는예선대회제일일은 전조선아마듀어 권투련맹(全朝鮮아마拳鬪聯盟)주최와 본사후원아래 십사일오후네시부터 안국정헌문소학교(安國町敦文小學校)에가설한특설링에서 열리엇다 멀리부산(釜山)마산(馬山)광주(光州)원산(元山)목포(木浦)인천(仁川)등지에서 왕좌를 노리고 등장한선수들과 중앙 무대에서 용명을휘날리는 청권(靑拳)동권(東拳)조권(朝拳)에서 참가한 유력한사삼십사명의 장의한입장식이잇서 선수와관중일동이 기립한후국가봉창과 황국신민의서사를제송한다음 새로히 동연맹회장으로취임된대회장 고원호(高元鎬)씨로부터 개회사가잇나자 선수일동을 대표하야 동권의(東拳)한홍하(韓龍河)군이 선서문랑독과황을수(黃乙秀)씨로부터 심판에대한 주의설명이잇슨다음 풀라이급으로부터 유란전이열리엇다 그리하야 각급에일회전과 이회전을마치고 금십오일은 오후세시부터 동장소에서각급의준결승과 결승전을 거행하기로되엿는데 권투전으로서는 보기드문백열전이 전개될것으로 흥미와기대는 자못노파저잇다

(寫眞은 競技光景)

第一回戰

【풀라이級】
李福成(朝拳) 判定 宋基東(靑拳)

【페더―級】
鄭鳳鉉(木浦) KO 安鄕根(仁川)
第一라운드一分六秒

【라이트級】
鮮于煥(靑拳) 判定 姜東文(馬山)

【웰터―級】
朴順源(元山) 判定 朴尙天(朝拳)
(審判…金裕昌、金明坤、金正學)

第二回戰

【풀라이級】
姜俠石(朝拳) 延長 金利鉉(光州)
金仁栗(東拳) 判定 李俊煥(東拳)
梁政鎭(東拳) KO 文炯植(光州)
第一라운드二分卅一秒
李福成(朝拳) KO 李尙俊(朝拳)
第一라운드二分一五秒
(審判…井上、李應澤、金明坤)

【밴탐級】
鄭福壽(東拳) KO 金思鎬(元山)
第一라운드二分九秒
金明鎭(朝拳) 判定 金熙中(光州)
李炳烈(靑拳) 判定 李延栗(馬山)
李鍾洙(仁川) 判定 吳七星(木浦)
(審判…金正學 黃乙秀 成萬慶)

【웰터―級】
李致應(靑拳) KO 河文鎬(仁川)
第二라운드四二秒
文春成(朝拳) 判定 成漢奎(朝拳)
權重瑛(靑拳) T・KO 崔善弼(釜山)
第二라운드二分十秒
趙炳奎(東拳) 判定 朴順源(元山)
(審判…金明坤 金裕昌 井上 金…)

悲壯한激戰裡에 榮冠은延專에

延長四次로百七十分의長期戰 蹴球史上에新記錄!

延普蹴球 6對4

長安의 人氣를 集中한 곳에서 蹴球朝鮮의「메인 에벤트」…朝鮮蹴球協會主催의 全日本選手權朝鮮中央豫選인 全普專對全延專의 決勝戰은 十四日午後三時부터 열리엇다 定刻이되자 京城運動場은 興奮에처진 大觀衆에 파뭇겨서 雁史的게임을 마지하엿다 이날日氣조차 兩軍의 對戰을 祝福하는듯五月의 黑風이 나부끼는明朗한날세엿다 年來의 勝戰을자랑하는 普專의 應援團은 北쪽스탠드에 陣을치고 이에對應하야往年의雪辱을 오른지 此一戰에企待하야 意氣자못 갑직한延專의 應援團은 南쪽스탠드에對陣하야 서로히 氣勢를올리고잇섯다 이윽고 兩軍의 陣地로부터 울려오는 校歌와『부라스벤드』、歡呼聲은出戰健兒의 士氣를激勵하야 戰頭부터 悲壯한激戰이展開되엿다 戰勢는 豫想그대로 勝敗의 歸趨를 헤아리기어려우리만치 伯仲之勢로 나아가더니 三十分頃부터 普專의防禦陣崩壞되여 延專連續得點하야前半은 四對零으로 斷然優勢하더니後半에드리가 戰勢逆轉하야普專大擧四點을 回復하니 四對四의同點으로 延長戰에 드러가無得點으로第四次延長戰에드리가延專軍幸運의二點을너허積年의敗恨을 깨끗시 시처버렷다 이리하야 全延專에게 蹴協中央支部長金東轍氏로부터 優勝盃를授與하엿다 이날延長四回에 亘하는百七十分間의 長期戰은 半島蹴球史上의 新記錄이다 休息時間까지 合하면 實로三時間十四分만에 閉戰되엿다 그리고 全延專은 朝鮮豫選에 地方팀의出場이엇는限 朝鮮代表로 來六月十七日부터 東京서열리는 第四回全日本 選手權大會에 出戰케되엿다

延專6 普專4
【前半4…0、後半0…4、延長2…0】

全延專對全普專戰은 同午後三時十二分부터 片茂英(主審)、權熙昌、李應天(線審)三氏審判아래 全普專의킥어프로 開戰된바 그戰況은 다음과갓다

【前半】兩軍지나친緊張裡에 풀만한 連絡도업더니 風勢를利한延專은 六分에 普專後陣에 突擊하야 連二次右隅蹴을 利하야 普專筌前에서 混戰타가 RI金成圩의『카―바―』로 CF韋恩德크리―큿하야 機先을 制하고 貴重한 一點을어드니 普專東書起하야 逆風을 돌코 延專後陣에 肉迫하엿스나 十三分에 一次蹴슛을 試하얏슬뿐으로·兩軍中央線을넘노는 攻防戰을 持續하더니 二十分에 普專FW線의『컴비네이숀』巧妙하게 延專筌前에 이르러 數次의 꼴슛을하엿스나 失敗、廿五分에 普專RW朴孝濟의 쎈더―링을 金容植바더 슛하엿스나 普포스트는左側을스치고 꼴아웃된後 卅分에 普專LH閔內大反則을거듭하엿다는 理由로 審判이 退場을 命하야 普專은 이로부터 十名이 應戰케되엿다 卅五分에 延專CF韋恩德끈리볼하야 普專筌에 擊進한체 普專CH原基載이 不法의 차―지를 하엿다는 理由로 延專에 넘리킥을 주하야 韋恩德의 슛으로 또 一點을加하야 二對零 延專리―드、五分을 남기고 强風이부러 普專의 攻擊陣에 큰 障碍를주더니 四十三分에 延專CF韋恩德의『크린슛』으로 또一點을 加하고 뒤이어 一分을남기고 韋恩德單身드리불하야 손쉽게 得點하니 四對零으로 延專斷然優勢裡에 前半을 마치엇다。

【後半】風上에陣친 普專은 前半의不振을 만회코저 猛然히攻勢에나아가 延專陣頭를攪亂시키더니 三分에 普專LI裵宗鎬의『크린슛』으로 快히一點을回復하자 普專依然攻擊을 거듭하야 延專은 全員이 守備에만注力할뿐이더니 兩軍多少疲勞의빗을보이며 意氣悄沈하야 措戰을되푸리하드니 廿五分에 延專門前에서 混戰타가 普專LW黃正河의 슛으로 一點을너허 四對二로 普專依然攻擊戰에나아가 卅一分에 LI裵宗鎬의妙蹴으로 無難히또一點을 回復하야 四對三으

(以下四面에繼續)

【全延專】

	前	後	延	計
門蹴	7	14	15	36
隅蹴	2	0	4	6
自由	3	1	1	5
罰蹴	1	0	0	1

【全普專】

	前	後	延	計
門蹴	7	2	7	16
隅蹴	3	8	12	23
自由	3	1	6	10
罰蹴	0	1	1	2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平壤蹴球第三日

小學團決勝戰 新明對東平戰

前半戰에 無勝負엿섯스나 兩팀이 모두 不正選手가잇슴이 摘發되여 退場命令을바덧다

中學團準決勝戰 明新對三中

第三中學이 學校事情에 依하야 棄權

光成中學對崇商

午後二時四十四分 金光信主審 開始 崇商先蹴으로 二對零으로 光成中學惜敗

▲今日의對陣

實業決勝―日鐵對久田 中學決勝―東光對安州 小學決勝―明新對崇商 ―午前十一時부터― 京城蹴球團의 對戰이잇다

流行歌 南仁樹 OKEH 청노새嘆息 12122 오케―레코―드

姜耳鼻咽喉科
醫學博士 姜日永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三一七〇番
入院室完備

特等白麥 大寶出シ 純白米食보다(市內配達) 三十圓也 十斗入一叺
家庭經濟 消化吸收 倍加 東大門市場 一信商會 電光一八二六番 穀物貿易

恩給 昭和四年時立替京城鍾路三丁目七 鄭商會

自働으로洗濯되는 감이상치안코줄지안코부비지안코
ランドリ―出現!!
毛織物、洋服、綿、富士絹、人絹、スフ、ステブルファイバー等무엇이든지『주구르며」부비며」하는수고업시人力을虛費안코冷水井水나水道水나어떠한물에든지담거만두면色이變치안코줄지안코傷치안코洗滌되는新發明 ランドリー試用品要 五十錢(切手郵送) 京城鍾路二丁目八五 明治商會

本報全南支社
光州府本町五丁五
電話七六七番

産婦人科 小兒科
婦人醫院
女醫學士 金龍喜
天然町八〇 電光二一八五

背髓病 專門良藥 神經痛 リウマチス 骨膜炎
無代進呈 兵庫縣明石市中町 太平堂脊髓藥本家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業社 電光一一五九番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此際普通科其次號一冊을兩科를通하야其學年末에相當한代賞與하고 新入生에게는無代로配付하며誠實繼續者에게는講義錄一冊을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學年學科講義
高等科…二十冊 一冊六十錢 一年三個月卒業(速修)
普通科…十二冊 一冊五十錢 一個年卒業(隨意)
學則附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振替京城八八九五番
本會의機關紙인月刊獨學通信을每月無代進呈

訃告
子根氏五月十三日午前十一時別世玆以訃告
發靷 五月十六日午後二時
式場 江陵郡…
葬地 …
昭和十三年五月十三日

腸に わかもと

新築家屋賣買開始 第貳回
獎忠壇公園隣接地요重要階級人士의文化住宅이大部分櫻ケ丘를占領함을따라交通路下水溝等衛生施設이充分한模範住宅地입니다
◎月賦販賣도有하니直接問議하시압
家屋、土地 貸出、木材
京城府鍾路二丁目永保빌딩三階
朝鮮建築社
電話光化門一三四九番

高級タクシー를타시라면 鍾路タクシー로下命하야주시압
電光二五二番 二五三番

慢性 急性 淋疾에 ネオヂリン
定價一圓・二圓・三圓・五圓・十圓
各地有名藥店에잇다
製造元 山本回生堂製藥所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中部版

納稅者等級決定코 出納檢查委員選擧

【仁川】 인천부에서는 연일계속 개회이든 부회에서 소화십삼년도 동영업세의 부과의 등급결정을 비밀리에 마치고 지난 십사일 오후한시부터는 출납검사위원을 선거하엿는데 그 씨명은 다음과 갓다

▲一般=大石、津、酒、宋石麟、金泰性 ▲二部=宋漢燮 金泰性 金允福 ▲一部=今村、牛田、向井

우리도京城府民 通行路를改修하라

彰義門박 住民蹶起 府當局에促進運動

부내청운정(淸雲町)으로부터 창의문(彰義門)밧 부암정(付岩町)을 거처 명소세검정(洗劍亭)으로통하는길개수문제로 요사이 자하문밧 세동리즉 부암정(付岩町)홍지정(弘智町)신영정(新營町)등세동리주민들은 결속해가지고 부당국에대하여 촉진운동을 이르키고저 전기세동리 유지들이결속해가지고 기성회를 조직하는중에잇다한다

그러데 전기세동리는 재작년 삼월 경성도시계획실시전까지는 고양군(高陽郡)으로소속되엿든것이경성으로 편입되면서부터 정회가생기고 도각종세금이 전보담 사오배내지 십배까지 늘엇스나 아모리한 부민으로서의 혜택을 밧지못해오는데다가 더구나 그리롯하고 좁은산길을 벌피고까거내리주지 안키때문에 차마는 물론보행조차 할수업게되여전기 세동리에살는 주민중에는문안으로 도부이사를 하는형편이어서 동、서、남부세군데서 날로 팔칙할만치 발전이되여가는 반면에부락 서울의전기세동리는 날로쇠잔해가는현상이라한다

더구나 창의문밧그로 말하면 북악산(北岳山)과 북한산(北漢山)가튼 서울근교에서 둘도업는『하이킹』의 명소로서 봄 여름 가을세절동안은『하이커ー』와 산책객들이 한때도 비일새 업시 길흘메우고잇서서 교통상 이 몹시부편리로 록히 여름장마철이되면 창의문길이 패여나가서 울룩불룩한 험상스러운 길바닥은 발을드려노흘수업게까지되여 그곳주민들과 일반통행인들의 부당국을 원망하는소리가 노파가는 형편이라한다

그러나 부당국에서는 그가리 험하고 나쁜길을 판공청의총독부를 바루코아데두고도그곳 영인 아모리한편리한길을 내지안허서 주민들로하여금 원망과아울러비롯한 폭발적에달해잇는동 이번에 전기와가리 도로개수촉진운동을 이르키게된것으로 그운동의 결과는 주목되는바라한다 (寫眞은 창의문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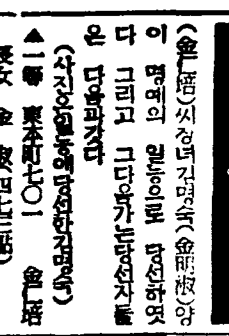
全國都市問題會議 準備委員卅名囑託

來二十日第一回委員會開催

전국 도시문제회의(都市問題會議)는 오는시월경성에서 열게될터인데 경성부당국에서는 이회의를앞두고 그본격적준비를 개시하려고 그준비위원회를 설립하기로되엿다 준비위원은 총독부 철도국 경기도의 각관계관과 경성제대(城大)교수등 약삼십명에게 촉탁하야 오는이십일쯤에 부청에서 제일회협의회를 열터이다 그리고 이회의에 출석할사람은 전국각부(府)현(縣)회의장과 시장(市長)시회(市會)의장등 약일천명에 달하리라고한다

幼兒寫眞展覽會 金氏長女一等當選

【開城】 본보개성지국후원과 개성부인회(?)주최로 매년 거행하는유아사진전람회(幼兒寫眞展覽會)는 금년에도 『아동애호주간』을 기회로 지난 일부터 본보지국에서 성대히 거행하엿다 그리고 그사진전내에서 고지난십이일에는 심사원 입회하에 사진부 작지국장(金英秀氏)입회하에 표결수의개표를하엿는데 최고점수는 사백칠십삼점으로 부내동본정(東本町)김인배(金順)씨장녀김명숙(金明淑)양이 명예의 일등으로 당선하엿다 그리고 그다음가는당선자들은 다음과갓다



(사진은일등에당선한김명숙)

▲一等 東本町七○一 金順 長女 金淑(四七三點) ▲二等 東本町三一一의二 金在 ▲三等 東本町三七二 高漢長女 ▲四等 滿月町二○七 ▲五等 高麗町一五六의六 ▲第二等 東本町(二二八點) ▲第二男 劉昊烈(二二五點)

開城音樂콩쿨大會 參加樂士四十餘名

【開城】 오는이십일일밤 고려청년회관에서 개막되는 본보개성지국후원과 고려공론사(高麗公論社)주최인 전조선남녀현상음악대회(男女音樂懸賞大會)는이미 발표하엿거니와 지방에도 등록을 참가자가 만흔대 이미 등록한 참가자는 조선각지에서 서울(京城)인천(仁川)을비롯 평양(平壤)선천(宣川)금교(金郊)전의(全義)해천(白川)연안(延安)등 각지에서 신청이 답지하야 모집기한내에 참가한 악사만 사십명이 초과하므로 지난십삼일까지 신청을 마감하얏다 그리고이번심사원은 다음과갓다

그리고이번심사원은 홍란파(洪蘭坡)씨와 전사이(?)씨등 삼씨라한다 참가자는 다음과 갓다 朴明吉 洪元福(全部) 平壤) 朴重燮 李玉奉 金東植 李世湖 李令喜 金東福 [illegible] 孝子 姜俊熙(全部京城) 洪元 一 李仁順 洪順約 金明喆 孔 淑 李重燮 李培中 李昌浚 李 錫東(全部開城) 金光燮 林永 男 尹柱文 尹秉順(全部白川) 金 朴明善 金東玉(全部延安) 李天(仁川) 金聖九(宣川) 洪 順喜(全義) 李睿根(金郊) 申 聖秀(坂州)

仁川府域擴張後 府民의負擔激增

第二敎育部側尤甚

【仁川】 시대의진전을 따라서부 역을 벌혀놋케 된인천부는 구역확장문제가 완해하고잇다 인천부로 편입 주안(朱安)문학면(文鶴面)일부가 인천부에편입된 그후에는 그지방 구역을 확장하야 부천(富川)군 되는데 교육기관도 신로히 편입되야 교육비의 부담자는 정신적제 고등고등의 부담이 첨가하게 경하여 금년도 본세(本稅)일 원에 대하야 구원 칠전이라 한다 이원 일원부 교육부의 부담 년보다 제이교육부의 부담 에 비하야 이배이상이나 된다 또 대두하고잇는 부천군서곶면 (西串面)과 소사(素砂)까지의구 역문제가 실현하게되는때는 제 이교육부의 부담이 더욱가중 하게되리라고 벌써부터 부민간 에여론이 비등하고잇다한다

富川農振幹部講習會

十八日부터兩日開催

【富川】 부천군(富川郡)에서는오 는십팔일부터 이틀동안 부천군소 사면사무소(素砂面事務所)에서 군내서곶(西串)계양(桂陽)소사(素砂) 부내(富內)오정(梧丁)소사(素砂) 의부락에 농촌진흥의 간부들을 소집하야 농촌진흥에대 한 강습을시키기로되엿다 여비 등 식대보조만을 일인당오십전 식하기로되엿다한다

四、富川農會聯合會負擔分의件 五、日興貿易協會大會開催의件 六、愛國工業者大會의件 七、議會의件

仁川商議役員會

【仁川】 인천상공회의소(仁川商工會議所)에서는 오는십칠일 오후세시 부터 회의실에서 역원회를 개최한다는데 의안은 다음과갓다 一、議員功勞表彰의件 二、議員辭任承認의件 三、朝鮮商工會議所總會提出議案

警協支部武德大會

二十一日부터開催

조선경찰협회 경기도지부와대 일본무덕회(武德會)경기도지부에 서는 오는이십일일 오후령시부 터 광화문통(光化門通)에 잇는 경기도순사교습소(巡査敎習所)강당에 서 제사회무도대회를 집행하고제 십오회무도대회를 열기로되엿다

藥業界多數從業員 待遇改善을主唱

하로에十七八時間勞動하고 賃金은傳統的으로今昔一般

고주(雇主)와 종업원사이가 오 랜 전통과 인습으로말미아마시 대의변함도 모르는듯이 가족적 (家族的)으로 련결되어 한가에 한미롱으로 알려저잇던 약업계 (藥業界)에도 부러오는 시대의 조류는엇지 할수업서 미풍속에 (?)용모순된 전통이 파괴될려면 가잇다한다 문화가 발전되고시 대가변천되면 될수록 고용인들 의생활이 불안케됨은 사회문제 (社會問題)가되여 잇슴으로 판 청과각회사며 공장에서는 이에 대책을강구하고 고용인들의 생 활안정에 힘쓰고잇는 오늘에약 업계만은 종래의 전통과 인습 으로 가족적인 관계상 자연근 로시간이 과중하고 봉급이 라든 지 대우도 변함이 업시 그전대우 다고한다

하는곳이 아즉도 만타하나 어 들 종업원들은 평소부터 불평 불만이 잇더라도 입을벙긋대로 우개선을 바라면서 그동안을 조 할것에 품팔치못한다고 하는데 이를 종업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로평균 근로시간이 십칠팔시 간가량이나 되어 수면 휴식시 간이 겨우 오륙시간에 불과한 다 한다 따라서 건강에 해로 울이야 더말할것도업고 목가는 풍동되어 생활의 위협을 늣기 고잇는지금에도 봉급은 그대로 잇서서 생활의 불안은더욱중대 되고잇슴으로 그비례로 약간이 나마 증봉을바라고 어떠한방법 으로든지 개선운동을 이르키려 는기세가 농후하다한다

朝鮮名賢遺墨과 現金八十圓盜難

仁川署犯人四方搜査

【仁川】 인천부 송현정(松峴町)에는 십 호창저미소(浩昌精米所)에는 십 사일새벽네시반에 절도가 침입 하야 현금팔십원과 조선명현의 유묵(遺墨)두장을 훔쳐가지고 그유묵 만 형적을감추고말엇다 그유묵 은 리퇴계(李退溪)의 글시한폭 과 류서애(柳西厓)의 글시한폭 인데 시가일백이십원이 여서 현 금까지 합하게이백원어치의 도적 을마젓다고한다 이신고를 맛고 인천경찰서에서는 사방으로 범 인을 찾는중이다

防空映畫會開催

十六日부터八日동안

경성방호단(防護團)에서는 경 기도경찰부와 합동주최로 일반 부민에게 방공사상을 가지게하 기위하야 오는십륙일부터 이십 칠일까지 매야여덟시부터 부내 각처에서 방공영화회(防空映畫會)를개최하기로되엿다 비가오면 이십팔일부터순차로열리라한다

十六日 永登浦小學校庭
十七日 鷺梁津商工專修學校庭
十八日 元町小學校庭
十九日 南大門小學校庭
廿四日 奬忠壇
廿五日 竹添小學校庭
廿六日 鷺松小學校庭
廿七日 敬新學校庭

仁川陳列窓裝飾 競技會五店入選

【仁川】 인천상공회의소(仁川商工會議所)의 주최인 인천항제(仁川港祭)에 전부내상점은 경품(景品)을 부처매출하기로되여 인천의상가 (商店)는 자못 은성을보이고잇 는데 그회의소에서는 상점진열 창 장식경기회(陳列窓裝飾競技大會)를열러이라한다

極光映畫製作所 安城名勝地撮影

【安城】 조선영화계에 권위자들 로망라된 경성극광영화제작소(極光映畫製作所)에서는 제일회작품 어화(漁火)의 촬영『로케ー슌』을하러 지난십일부터 그림영소 소원일행십오명이 안성에와서안 성의명승지를 순조로밧이고 예 정기일인 지난십일에 귀경하엿 다

東門署管內腸窒扶斯 豫防注射施行日割表

五月十六日 二十三日
▲東大門署 鍾路四丁目 仁義町 禮智町
▲於義洞普通學校 鍾路五丁目 鍾路六丁目 孝悌町
▲敬新學校 苑南町 蓮池町 臥龍町一部
五月十七日 二十四日

地方人事

▲森山淸吉氏(楊州郡內務主任)振威郡守로 榮轉 人事次本報楊州支局來訪
▲小坂傳氏(楊州署警務主任)水原警察署警務主任으로榮轉人事次同上
▲韓徹喜氏(楊州郡社會主事)新任人事次同上

公設市場販賣成績 昨年보다良好

경성부공설시장의 사월중의상 황을보면 일용품시장으로는 화 원정(花園町)시장에서이만칠천일 백오십일원어치를 팔엇고 용산 (龍山)시장에서는 일만오천삼백 구십원 서대문(西大門)시장에 서는 일만오천이백원 마포 (麻 浦)시장에서는 일만일천오백오십 구원 영등포(永登浦)시장에서는 오천칠백사십원어치를 팔엇다 그 합 게는 칠만오천칠백칠십일원에달 하엿다 이것을 전년사월에 비 교하여보면 삼천육십일원이 증 가되엿다

그리고 시탄재소시장은 동대 문(東大門)시장에서 삼천원 서 린정(瑞麟町)시장에서 일천이백 원이고 서대문(西大門)시장에서 삼백원으로 그합게가 칠천원이 다 이것을 전년사월에 비교하 여보면 팔백삼십원이 증가되여 잇다

開城敎育界恩人 高漢鳳氏讚賀會

來二十日에開催決定

【開城】 일찍이 개성실업 유지 들은 남녀중학교 설치기성회(男女中學設置期成會)를 조직햇스 나논은 모집되지안어 유야무야 한상태에 빠저잇슬때 부내에숨 은유지 고한봉(高漢鳳)씨가 혜 성가티 나타나서 전기중학교설 치기본금 이십오만원을 선듯내 여놋케 되엿는데 이것은 개성 교육계에 처음보는 아름다운사 실로 질만부민은 고한봉씨의특 지에대한 충성이 자못도파서각 방면에서 고한봉씨찬하회(讚賀會)를개최하자는 의론이분분하 야오던차 그러나 어느편이 주 최자가 될는냐하는 문제로오날 까지 지지부진해 왓든것인데 지난십이 일개성초등학교설치 기성회(初等學校設置期成會)간담회 에서는 이문제가 원만히 결정되여 개 성부회의원과 전번중학설치기성 회원및 현재초등학교설치기성위 원들이 서로합해서 발기인이되 여가지고 오는이십일에 찬하회 를 성대히 개최하기로 결의하 엿다 개성질만부민은 누구나 이 날에 참가하야 축배를 노피들 어 고한봉씨만세를 고창하도록 과범위로 초대할모양이며 상소 와시간은 아직결정못햇는데 추 후에 자세히 발표하리라한다

永宗島通仁航路紛糾顚末記

厥女하나를두고서 三角으로爭奪戰

그러나監督當局은愼重處理

④ 永宗島는男農女漁鄕

仁川支局 李俊相記

인천과영종도사이의 항로는 보통 다른교통기관과 작은 연락선이 연락을하고 영종도주민은 참으로서는 어선으로 얻지 보통 교통기관이요 문호(門戶)이요 생활의 이요 일 부락이 장아리보이 는 작기야 이야기 거서 떠나서 아니할수업 한로라하지 의곳의 산 물(産物)을 대장하라보 러한다 이 곳은 섬이

라고하야 무슨해산물이만히나는 줄로 세상사람은 알기쉽겟지마 마는 그곳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일개의 농촌으로 어업(漁業)파상업(商業)을하는 면민은 별반업다고하야도 조흘만치 히 소하다 그러나 부녀자들은 그 리치아라 남편과 자식들은 농 사에힘쓰고 자기들은 바다로나 가서 무엇이든지잡는다 예를들 면 굴 조개 뻘죽살 동죽살 상 앞살 낙지 가튼것으로 이것을팔 일잡아서 당일로 인천으로가지 고가서 파라서 자기들의 일 용품으로 바꾸기도하고 또는생 활에 보태기도한다 이것은 대 게 젊기가잇서서 보통에는 매 일가리 그수효가 삼사십명으련 다하며 아침이나 저녁때는 이 뿔의왕래로인하야 큰번잡을이루 고 잇다한다 이와가튼 생활의 향로를 일개의영리기관으로 도 리서 일 이개인의사복을 채우 는것보다는 일반면민이 이롭경 영하야 그야말로손해가나든 이 의이잇든간에 공동경영으로하야 이의이난다면 교통기관의 시설 확충과 도선장의개축 가튼것을 하는것이 당연치안흘가 생각한 다

◁——◁——▷

그러면 이항로가 면직영으로 하는냐?종전과가티 『통인조합』의경영으로 그냥 두게하는냐? 이는바는 모든해결의열쇠를 부 일반면민들의 더욱 가깝하게여 철군파 인천경찰서와 군당국의 처리여하를 더욱주목한다 이번에 김(金)면장이 신임하면서 군파 도(道)에 가서 항로허가에대한 의향을 대개아러보앗다는데 그 이야기를 드러보면 도에서도면 영으로허가할방침이엿다하며 각 파장들도 면영으로 하는것을 대 단 찬성하얏다는말도잇다 그리 허재의『통인조합』사인 김형환 이내용을 자세히 조사치안코는 알수업다고한다

가장주목되는데 기자가 이문제 에대하야당국에 아라본측 머지 안흔 시일에 해결이 날것이라고 말한다 그리면 무엇으로 인하야 반년동안이나 이문제를 끌고도아 직이리타할만한 처리 방법을보 지못하엿는가 곡절도상당히만흔 모양이다 첫재는 허가권의승게

(承繼)문제로 이것은 전부조합 장인고박원상(故朴元相)씨의 명 의로 허가가되여잇기때문에 바 씨의 장자되는박영진(朴英鎭)씨 는 자기의 아버지로 잇던 것이니만치 자기가이표로 그허가 의승계(承繼)권을가질것이라하고 김형환(金衡煥)씨는 이는조합대표로그 허가가 잇섯든것이므로 현조합 장인 김동화(金東華)씨아프로허 가원을 제출하엿다한다 또현면 장인 김현직(金顯稷)씨는 이번 이리한기회에 이항면영으로 만 들지 안흐면 아니되겟다는 각 오아래 각관계관청을 방문하고

그뒤 그조합에서는 종회를열 고 이러한사연을 각조합원에게 알려주고 지금현재 조합에잇는 동산(動産) 부동산(不動産)을 매매 한도록 이의(二議)을 가지고 본수가잇지 한출기합(?)지정(指定)되엿다 이것은 하면 그야말로받을것을 하얏다한다 이항로허가만은 면으로 하여달라고 명령의활동을 하얏다한다 어떠케이를 빨리처리할수 잇스랴 기자가드른바로는 이문제의 열 쇠를가진 이씨(二氏)의인천경찰서 장이『통인조합』간부들을 불러 서 이것은 곡면영으로 하기로 되엿스니 당신들도 그만큼생각 하고 모든일을원만히 해결하도 록하라고 말하얏다 한다

다 그리면 이가격이 정당한대 까일까? 그조합의 연년이 보 고하는 결산서를보면 동산、부 동산을 전부합하야 칠천원으로 되여잇다 이것을 비교하야보면 거의 배액이나되는 호까이다 등 인조합간부들이 면협의원들이요 면협의원의 원리가 통인조합 간부들 임은 틀림업는사실이다 면협의 원으로서 그면의 기본재산이얼 마나되는지 또는 세입、세출이 얼마나되는것을 잘몰리인데도 불 구하고 그와가튼 부당한호까를 한것은 도대체 그의미를 알수 가엇다 면협의원된 책임상 일 반면민을위하야 면영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리한부당한 호까를할은 오히려 처사라고보 기어렵다 이번에 한번팔리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의미로 기본 재산 철천원바게안되는것을 일 만삼천원이나 바들려고 하는것 인지 이문제에대하야 각관계자 들로부터 들대로 그전말을기 록하야보겟다 (계속) (사진은 제이영종환)

江華郡軍援聯盟 海軍에愛國獻金

경기도강화군(江華郡)군사후원 연맹에서는 해군에대한 국방헌 금을 모으고잇던바 십삼일 대 표로서 박(朴)군수가 총독부를 방문하고 일천삼백이십삼원팔십 이전을 헌납하엿다

부인병良藥

無代進呈

命之母本舖에서는 三千里江山어느가정에도 꼭 必要한 婦人病自宅治療書를 조선말로알기쉽게자세히써서 朝鮮婦人에게 衛生知識을普及시키기爲하야 一般家庭에한권식거저드리는것이니 葉書로라도婦人이라도請求하시기바랍니다

婦人病自宅治療書

대하증을곳치고 임신까지하여섯다고

날마다모여드는감사장/

京城、朱爾子氏는 신문잡지망고에 하도여러번 속어서『命之母』가티신용잇는약도 의심스러워서 쓰지안타가 친한동우의 소개로 한제를 주문하야 복용한것이 의외에 약효가 조와서 아래배압흔것도낫고 대하증도 차차로숙어서 대단히 기뻐하던중에 임신까지하야 남편과 시부모도 조와한다고。

洪川、金玉姬氏는 아직까지 결혼은도하지안흔 처녀의몸으로 매일파가리 두통이심하고 현기증이나는때도잇고 아래배가아퍼서 곤난하든중에 월경도 불순하야지고 대하증이만히흘러서 병원에도가보앗고 다른약도써보앗지만 조곰도낫지안흐므로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보내며 걱정하다가 이약을쓰고 완전히 건강회복하야 얼굴에화색이 들고 살결이고와지므로 속마음으로 기뻐한다고。

命之母

주문법

명지모를 주문하야복용하고자하는분은 병세를속임업시 자세히적어서본포로보내시면 병세에꼭맛는약을 대금인환으로 보내드리오며 또한 약을선금으로주문하시는분에게는 송료를전부 부당해드리오니 여러분게서편리한 방법으로 약을주문하야쓰시기바랍니다

藥價

六日分 一圓
一三日分 二圓
二○日分 三圓
三五日分 五圓
七○日分 十圓

東京市京橋區八丁堀二 合資會社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五○番 電話京橋一八八七番

속으로잠복된 부인병에 제일조흔치료법

병원에가도 낫지안코 다른약으로도낫지안는 부인병에는 명지모를 복용하고 완전히낫 기시기바랍니다。

병원약이나 수술이라는것은비용도만히걸리고 외치할뿐만안이라 가정부인으로서는 남모르는부인병에가기도 어렵지만 병원에간다고어떠한병이던지 전부낫는것이아닙니다 또한 양약방이나 한약방에가면 근래에는 여러가지약이만히잇지만 하나도신용할만한것은 업슬것입니 다 그럼으로여러분가운대 그동안여러가지약을써보아도 병은낫지안코 점점더심한고통을 하시는분은 꼭한번명지모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지모는조선 만주 중국에서 작고작고 주문이오고 서양각국에서도 주문이 만히 오는것으로도알할것이지 신용이잇고 약효가제일조 라는 증거입니다 그럼으로 지금까지 명지모를써보지안흔분은 주저말고 지금곳한번 복 용하시기바랍니다

은복용해 보지는것이조흡줄로잇슴 니다 만일한달동안을 주문하엿다 가 약효가 조와서 일주일동안에 병이곤처되엿다 하드래도 남은 약을다른 사람에게주거나 필요 업다고 버리거나 하지말고 한 달동안을 꾸준히복용하시면 재 발될염려도업고 몸이시조흔효 과를어더서 근치하고 귀여운애 기를나실수잇스니 여러분게서명 지모를 주문하야 복용하고자하 는분은 여러분의 병세를숨김업 시자세히 적어서보내시고 약은 몟칠분만전당하게보내라고하시면 본포에서 여러분의병세를자세히 보고 병세에제일적당한약을보내 드립니다

약을먹은후 三분이면약효를 알수잇습니다

명지모는 복용한지삼분만지나면 얼굴에화색이돌고 기분이조와질 뿐만아니라 이약을복용한지하로 이틀지나고 일주일 이주일이지 나는동안에는 확실이약효가나타 나서 어떠한부인병이던지곳칠수 가잇고 또한 전부터한약을만히

쓰든 우리조선부인의 체질에는 제일적당한약이라고 잇습니다 부 인병은 고통이심하지안터도 병 은벌서만흐고집이되여잇는수가만 흐니 이약을주문하야 복용하고 자하는분은 우선일주일 동안이 면효과를 알수잇지만 한달가량

純土の肌理に愛用されるもの

牛乳石鹸

泡か美を生む

科學的製品으로 서最優良을자랑하 는牛乳石鹸은……

살결을매끄럽게하는牛乳 成分을作用케해서精製한 것이므로女性과幼兒의부 드러운살결에도刺戟을주 지안코쓰는氣分이爽快해 서健康美를더합니다

演藝娛樂

樂劇團 桃園境 誕生
十七八、兩日밤創立公演 東洋劇場

조선예원에는 그동안 이상의 소녀가극단(少女歌劇團)도 잇섯고 레뷰-단도 잇서왓스나 아직도하나의 독립된존재로써 계속해오지못햇다 이번 조선에도 완전한 레뷰-전문의 악극단(樂劇團)을 조직할 필요를느끼여 권일청(權一晴)윤성파(尹星波)최병룡(崔秉龍)홍개명(洪開明)리서구(李瑞求)씨등이 발기인이되야 악극단도원경(樂劇團桃源境)을 조직하고 오는 십칠、십팔양일밤 시내 동양극장(東洋劇場)에서창립제일회공연을 하게되엿는데 부서와 출연종목은 다음과갓다

演出責任 權一晴
經營責任 尹星波
文藝責任 洪開明
宣傳責任 崔一波
李瑞求

事務所 市內樓北町四의五二號

上演프로
李瑞求作 喜歌劇『사랑의꽃다발』
춤과노래 一、五月薰風 二、바드소서이웃음

三、D
李瑞求作 青春劇場

할리우드에는 스리·디(three D)라고해서 『D』자를 가진 명여우 세사람이잇다.
一、아이린·더언
二、다니엘·다류-
三、듸아나·다-빈

西村通譯官講演 數詞의 同一
十五日夜 第二放送으로

십오일오후열시십오분부터 제이방송(第二放送)을통하야 총독부도서과서촌통역관(總督府圖書課西村通譯官)은 수사의동일(數詞의同一)이라는연제를가지고 조선말로방송하게되엿는데 그강연의요지는 다음과갓다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실행은 먼저 말에서부터 시작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어떠케하면 아모꺼리김업시 국어나조선어가 잘통할수잇슬까하는것이큰문제다 문학박사 백조고길(文學博士白鳥庫吉)씨나 영국인『프랭크·헐리』씨나『아스톤』씨등은 조선어와 국어가 전연갓지안타고한다 즉 수사(數詞)로보더라도 하나、둘、셋하는것과 ヒ、フ、ミ라는것이 어듸가 가트냐?하야 수사동일론에반대하고잇다 이들은 모두 세계일류학자이기때문에 일반이 그것을 그대로미더오고잇는것은 유감이다 조선에도 하나、둘、셋하는것이 중앙아세아제민족의 수사와갓다는학자도잇스나 조선어와 국어의수사의동일한근거에 대해서는 연구가업다

이런전제로써 국어와 조선어의 수사동일론의새로운연구를 발표하리라는데 서촌씨는 여게대한 연구가 기픈이만치 이강연에대한일반의 기대는 크다

十五日(日曜)

◇正午(東) 時報 맨돌린合奏 城大맨돌린클럽

◇(實況) 第十四回全朝鮮蹴球大會實況 ◇오후부터中繼 ◇同六時(平) 少年小說『相逢』 외조부의日記 作 朗讀 ◇同六時二五分 經濟講話 ◇同七時三〇分 新民謠 一、방아打鈴 二、栗山道 三、도라지打鈴 四、興打鈴 五、늴리리야 ◇同七時五五分(東) 伴奏 DK管絃團 안코-드 一、킹·칼·마-치 안온合奏 二、세레나-데 메스作曲 三、키스엣트 마-드라作曲 四、喜劇序曲 케라-키-作曲 五、돔보·갓코-듸오·벨드-베라作曲 ◇同八時二五分 野談『馬賊의娘』 ◇同八時四五分 一、새打鈴 二、興打鈴 三、六字백이 ◇同九時一〇分 유모어콩트『結婚秋』 春秋作 配役 金永植 卜惠淑 金玉 ◇同一〇時一〇分 風習講座 數詞의同一 西村眞太郎

十六日(月曜)

◇正午(東) 時報 (大) 管絃樂 케스트라 ◇午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身熱이야기』 李先根 ◇同六時 童謠 一、齊唱 널구나들이서 二、同 집보는애기노래 三、獨唱 아저씨모자(劉英順) 四、齊唱 개고리 五、獨唱 애기각씨(劉甲順) 六、齊唱 어린음악대 七、獨唱 호듸기(劉英順) 八、齊唱 참새채조 九、獨唱 물새발자국(劉甲順) 十、齊唱 봄제비 伴奏 DK管絃團 編曲及指揮 洪蘭坡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二〇分 週間情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植物生理의秘密』 李德鳳 ◇同八時 (東)해몬드오르간獨奏와合唱 一、해몬드오르간獨奏 前奏曲과遁走曲 F長調 빠하作曲 二、合唱(無伴奏)『미사브레베스』中 파레스트리-나作曲 草川宣雄 ◇同九時 連續野談 (二)『嬰梅堂』 申鼎言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七) 宋今璇

第一放送

◇同正午(東) ◇午後六時 (城)만돌린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二〇分 同 ◇同七時四〇分 同(自天津) ◇同八時 (東)歌謠 ◇同八時三分 (城)同 ◇同八時五〇分 (東)라디오風景

第一放送

◇午後大三〇分 文部省選奬 ◇正午 (大) 管絃樂 ◇午後大時(大) 物語 ◇同六時二五分(大)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歌謠 ◇同七時四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合唱 ◇同八時三〇分(城) 民謠 ◇同八時五〇分(東) 小說

十七日(火曜)

◇正午(東) 時報 新民謠(레코-드) ◇午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朝鮮婦人服裝에對하야』 都相鳳 ◇同四時三〇分 野球試合實況(國際)(決勝戰이有할時)-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雨天順延)京城實業野球리-그『府廳-鐵道決勝戰』 ◇同六時 童話『시계업는동리』 全同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數觀念의發達에對하야』 沈亨弼 ◇同七時三〇分 講演『스테-플과 이비(衣料)用과그것에對한正當한認識』 朝鮮織物協會副會長 金季洙 ◇同八時 (東) 歌謠行進曲 一、紀元二千六百年頌歌 東京音樂學校作曲 二、報知新聞懸賞當選歌『日本國歌』 小田進吾作曲 三、日本文化中央聯盟懸賞當選歌『日本歌』 東京音樂學校作曲 四、大阪每日新聞、東京日日新聞懸賞當選歌『日丸行進曲』 細川武吉作曲 五、朝日新聞社懸賞入選歌『皇軍大捷歌』 堀內敬三作曲 六、日本萬國博覽會行進曲 東京音樂學校作曲 七、新日本行進曲 AK文藝部作曲 獨唱·合唱 東京리-다-펠라인 伴奏東京放送管絃樂團 ◇同八時三〇分 西道歌謠(京城) 一、놀량 二、앞산打鈴 三、뒤산打鈴 四、京발님 五、진離逢歌 六、가진離逢歌 金順 ◇同八時三〇分 西道歌謠(平壤) 金香紅 ◇同九時 連續野談 (二)『嬰梅堂』 申鼎言

第一放送

◇同正午(東) ◇午後六時 (城)만돌린

運動競技

(二面繼續)로 스코어는 接近하니 滿場은 熱狂! 또興奮! 普專軍乘勝長驅之勢로 延專後陣을 猛襲하다가 八分을넘기고 普專『페날티킥』을 利用하야 RI金容植의 强蹴으로 一點을너흐니 四對四로 同點되자 延專 焦燥한비치 떠돌며 陣形이어지러워지니 防禦에만 汲汲하다가 所定의九十分을마치고 延長戰에드리갓다

【延長】氣勢를올린 普專軍徹頭徹尾攻擊에나아가 數次의好機를 逸한채 前半十分을마치고 後半에드리가 風勢를利한 普專軍依然猛襲을試하다가 兩軍無得點으로 第二次 延長戰에 드리가니 長期戰에나 드러간듯이 몰만한 戰況도엇섯고 또다시第三次延長戰에드리갓다 이리하야 選手들은 勿論이려니와 觀衆들까지도 氣盡하야 無味乾燥한 께임을演하더니 또四次延長戰에드리가前半에 普專陣의 空虛를틈코 延專 RI金成玕單身두리볼하야 幸運의一點을너흐니 五對四로 延專리-드하자 뒤이어九分에 普專 페날티킥을 利하엿스나 RI金容植아까운게 失蹴한後 後半에 드리가 九分에 隅蹴을 利하야 RW宋昌濂의킥을 韋惠德에영한 것을 RI金成玕크린슛하야 또 一點을加하니 六對四로 延專이 凱歌를부르엇다 (께임 百七十分間) (寫眞은 全延專軍)

延專對普專 蹴球戰評

兩軍이 百七十分間에 亘하는 激戰에도 百折不屈하는 鬪志를 最後一刻까지 버리지안코 奮鬪햇슴은 精神에잇서서그리期待에 어그러짐이엇섯스나그러나 戰況에 나타난 세로운 戰法의 策戰은 지나친 興奮의 影響인지 차저볼길이업섯고 다만 新銳들의 精彩잇는 活躍과 個人技에 卓越한 몃몃選手를 指摘함에 不過할것이다 延專이 後半에잇서서 韋惠德君의 눈부시는 獨擅的活躍으로 四點이란 큰 스코어를 내인것은 普專守備力의 欠陷을 틈수밧게업다 前半에드리가 普專姜炳鎬君과 金容植君의 神出鬼沒한 活躍으로 四點을 挽回하도록 萎縮된 延專은 防禦에만 汲汲하고 積極的攻擊에나아가지안은것은無謀한 策戰이라하겟다 普專은 閔君의 退場으로 前半戰부터 十名이 應戰케되여 左翼에 空虛를 늣끼게된 것도 큰 敗因의 하나이며 金容植君이 守備陣으로 後退하얏든들 六點까지許하는 揶戰은 演하지안헛스리라고본다 兩軍모두 FW線의 傑出한『윙』은 보는 사람들로하야금 痛快한 感을늣끼도록 進步되엿다 全員은 延長戰을 거듭할사록 極度로 疲勞하야『템포』가 느려지고 큰 期待를가젓든『W』포-메이슌과 三B制의 妙味도 發揮치못하엿다 이날 延專의 勝因을지은 韋惠德君과 金成玕君은 殊勳者로 紹讚할만하엿다 【高鳳梧記】

實業庭球第七日 遞信·府廳各勝

京城實業庭球리-그第七日은 遞信對府廳戰(第一코-트)과 鐵道對殖銀戰(第二코-트)은 十四日午後二時부터 擧行한바 府廳軍과遞信軍이 各勝하엿스며 前日에日沒로中止되엿든 未濟組戰도 繼續擧行한바 殖銀이府廳을 遞信이 府廳을各勝하엿스며 遞信對殖銀은日沒로再次延期되엿다

第一라운드 【遞信】勝 【府廳】
○(朴鍾燁 李永均 4…0 李鳳基 李基用)×
○(姜鶴植 元大鉉 4…2 金世羽 梁在景)×
×(宮時 李鍾堤 3…4 全泳俊 房金錫)○
×(洪承杰 孫觀鼎 3…4 朴用善 朴寅世)○
○(松田 金亨泰 4…0 矢野 李正王)×
第二라운드
×(朴鍾燁 李永均 2…4 全泳俊 房金錫)○
○(姜鶴植 元大鉉 4…2 朴用善 朴寅世)×
第三라운드
○(松田 金亨泰 4…3 全泳俊 房金錫)×
【府廳】勝 【鐵道】
○(白間 李鳳基 4…0 朴源福 井上)×
○(海野 野村 4…2 任完淳 秋山)×
○(金石泉 李慶得 4…2 杉木 黃秉坤)×
○(張南星 山口 4…2 芮鏞高 坂)×
○(金種君 瀨戶 4…0 長沼 渡邊)×
【殖銀】勝 【府廳】
第四라운드
○(崔永生 權純仁 4…0 瀨戶 金種君)×
(지난九日未濟分)
【遞信】勝 【府廳】
第三라운드
×(朴鍾燁 李永均 0…4 瀨戶 金種君)○
第四라운드
○(洪承杰 孫觀鼎 4…2 瀨戶 金種君)×
(지난十一日未濟分)
【遞信】? 【殖銀】
(洪承杰 孫觀鼎 ? 吉田 矢田)
三對二로 殖銀리-드한채 日沒로再次中止됨

實業野球第四日

府廳 0 0 2 0 1 0 1 0 1
鐵道 2 0 2 4 0 1 0 0 0 1
9…5

遞信 0 1 0 0 0 0 [illegible]
殖銀 1 0 0 0 0 0 [illegible]
3…2

六大學野球經過

明大 1 0 0 1 1 0 0 0 2
早大 0 1 0 0 0 0 5 1 A
7…5

帝大 0 3 3 0 0 1 0 0 0
慶應 3 4 0 4 0 4 2 2 A
19·7

世專優勝 對平醫專決勝

【平南支社電話】關西體育會主催의 第十四回全朝鮮蹴球大會第三日…專門校決勝戰인 世富蘭偲醫專對平壤醫專은 十四日午後四時半부터 箕林里球場에서 行한바 世醫專軍이 지난해의憤敗를 雪辱하고 三對零으로 優勝하엿다

世醫專3 (1…0 / 2…0) 0平醫專

【世專】【專門】【平醫】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今日의運動

▲拳鬪=全朝鮮아마튜어拳鬪聯盟主催 本社後援 比律賓拳鬪招聘戰 朝鮮代表選手大會第二日 午後三時 安國町徽文小學校特設리(觀覽料=廿錢均一)

▲蹴球=朝鮮學生蹴球聯盟主催春期蹴球리-그第二日…高工對高農(午後二時)京城帝大球場(觀覽無料)

▲野球=京城實業野球리-그第五日…殖銀對遞信二回戰(午後一時)鐵道對府廳二回戰(午後四時) 以上全部京城球場(觀覽料 대는後面四十錢、一般廿五錢、學生十錢、小學生五錢、軍人無料)

長篇小說 濁流 【197】
蔡萬植作 鄭玄雄畵

序曲(中)

동생과 얼굴이 마주치자 초봉이는 힘엇시 고개를 떠러트린다。

계봉이는 형의 아래까지 와서 조용히 선다 말은 업고형의 숙인 이마를 보던 눈을돌려 상우의 약병소스소으로 물컷다 가 도로형을돌본다 이때는 눈에 다 기색이 벌써 다아 가시고 설움이 갓득히 얼골로 갈려올 엇다

저 사약(死藥)이 말을하는족 엄이 아니면 벗(法)이 주는형벌…일순간 후에는 반드시 오고야 말 형의 애색한 운명을 시방 계봉이는 독립한 딴 개체(個體)의것으로가아니요 바루 제 살(肉體)속에서 감각하고잇는것이다。

『언니!』

디리 몸부림이 치일 직전의 무의식한 호흡이겟지 부르는소리도 목이 메여 목에서 걸린다。

초봉이는 순순히 고개를 들어 우스려고한다。조용히 단념을하는 미소 허니 그것은 우슴이기보다 우름에 가깝겟지만 그거나마 동생의 너무도 절박하게 암담해진 얼굴아페에서는 인해 스러저바리고 만다。하고 서 방금 우름이 터저 오를듯 엄이 비죽비죽한다。

『계봉아!』

『언니!』

계봉이는 와락 쏠려들어 형의 아래두리를 얼사안고 졀절리고 초봉이는 그대루 주저안조면서 동생의 어깨에다가 고개를 파뭇는다。

두 우름소리가 하나는 놉게 하나는 가늘게 서루 뒤석겨고요히 들린다。

『죄끔만 더 참덜 안구! 죄끔만……』

갑자기 계봉이가 얼굴을 처들면서 어깨를 쌀-쌀 안타까웁게 섬화를 한다。

『…죄끔만 참엇스면 남서방이 나서서 언니를 구해내 주구… 다아 그러기루 햇는데… 죄끔만 더 참지! 이일울어떠케 해! 언니… 언니!』

계봉이는 도루 형의 무릅에 가 업드리진다。포혹하다못해하는 소리요、말 하는 그대루지 말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업던것이다。

그러나 듯는 초봉이에게는 그리케 단순하게만 들리던 안햇다。

초봉이는 가슴속이 용소슴을 치는채、울던것도 이저바리고 멍벙하니 안저잇다。승재가 나서서 나를 구해내주고 그리고다 아 그러기로 햇다고?……。올라! 시방도 그러니까 나를사랑하고、그래서 다시 거두어 주려고!……。

이러케 생각할때에 초봉이는 금시로 몸에 날개가 도치는것 가엿다。그러나 그다음 순간 정말 그러구나。그래서 그러케 오것이고… 그러면것을 아러딸사! 죄판 참엇더라면…

안지갈란 참엇서도…

생각이 이에 미처자 그만 상서이란도할듯 호흡을 뒤고싶게 안타깝다。

어 정당한 오해는 물론 계봉이의 고의도아니요 초봉이의 잘못도 아닌것이다。

초봉이는 동생의 뿡우에도 다시 업드려 애가 끈히게 운다。

승재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잇섯구나 하면 이대지도 기뿐노릇은 생후 처음이다。그러나 시방은 일을 저즈른 뒤… 부지럽시 큰 기쁨이 순간의 어굿짐으로해서 내것이 아니고마 럿스니 그는 세상에도 업슬 픔。

그래도 승재가 이제껏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반갑지 안호냐… 반가우면 무얼하나。인제죽고 말테면서… 아-니그래도… 글세… 어떠커나 어떠케… 이러케 자꾸만 되푸리를 하는동안 초봉이는 일이 기쁜지 슬픈지 마친내 분감을 하지못하고 울기만하던것 이다。

이윽고 승재가 안ㅅ방으로부터 건너와서 우둑허니 문지에 가 선다。

승재가 건너온 기척을 알고 초봉이가 먼첨 이러나서 되사리고 안저 숙인 얼굴을 두손으로 싸다。뒤미ㅊ 계봉이도몸을 이르켜 여페 섯는 승재게로 도웅통 부은 눈을 돌린다

승재는 그뜻을 알아채리고 도래질을 한다。형보는 아주 치명상으로 절명이 되엇던것이다

승재가 몸주체를 못하고 섯는것을 계봉이가 눈ㅅ짓을해서 그자리에 편안히 안고 세사람은 초봉이가 따암 땀 가늘게 느껴 울뿐、다가치 말이업시 한동안 잠잠하다。

『언니이?』

침착을 회복하여 곰곰이 생각을 하고잇던 계봉이가 얼마만에야 목소리를 가다듬어 형을 부르면서 조금 더 닥어안는다。초봉이는 대답대신 얼굴의 손만 떼엇다가 도루 가린다。

『저어、응? 언니이……』

『……』

『저어、응?…、경찰서루 가서 자현을 허우、응?…。그러자 마…』

말을 채못하고서 계봉이는한숨을내쉰다。초봉이는 움칫 놀래어 얼굴을들고 동생을 바라다본다。무어라고 할수업는 착잡한 표정이 퍼뜩퍼뜩 갈러든다。

동생의 말은 선뜻한 반가운 소리엇섯다。

그러나 아속스럽 표주엇섯다

消化促進、榮養增進
タカヂアスターゼ (登錄商標)

タカヂアスターゼ의眞價
澱粉消化力은絕對無比
十餘種의消化酵素를含有함
胃酸液·膓아루가리液에効力이減치안코効力恒常一定·永久不變
茶코-히에 効力減退치안함
三十餘年全世界醫家의……愛用推奬을바듬

說明書進呈
日本製造元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三 SANKYO 共

絕對必要한 榮養素
オリザニン (登錄商標)
오리사닌
비타민B의世界的始祖
學界의標準品으로서
品質의純良과効果의的確을자랑한다

姙娠、産褥、授乳時에
脚氣의豫防과治療에
疲勞防止와恢復에
體力維持增進에
成長促進에
自家中毒等에

說明書進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X光線科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府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奉天自動車株式會社附屬
滿洲自動車學校生學募集
毎月一日新學期開始
本科 二個月卒業
受驗科 一個月卒業
創立以來十六年 設備東洋第一、合格率最高、就職迅速、在學生百五十名、寄宿舍完備
乘用車及トラック練習 入學則滿求時要二錢切手
奉天商埠地十一緯路五五·電話(二)二九四四番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家庭經濟 改革斷行
먼저、값싸고 손쉽게 모든음식을 맛잇게 하는 아지노모도使用으로부터!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鈴木商店

松竹キネマ 明治座
5月13日より……5月15日まで
朝日·讀賣ニュース 11·00 2·55 7·00
男は神に非ず 11·38 3·28 7·38
R·K·Oパテーニュース
漫畫 1·04 4·54 9·04
愛の光 1·29 5·17 9·28
大週 16日より『牛乳屋女』『舞臺裏の戰慄』『伯林バラエテー』

中央館 永樂町 本三〇一四
毎日晝夜二回興行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一〇
大毎ニュース
ハヤブサヒデト 大河百百代主演
波止場の摩天樓
ハリー·ピール·ジズ·ルーナ 主演
動物曲藝團
澤村國太郎 大倉千代子主演
刀を拔いて
十四日ヨリ十七日マデ 四日間 階下席 十錢均一公開

日活 黃金座
京日ニュース 2·40 6·50
日活·旅の風來坊 10·50 2·50 7·00
朝日ニュース 11·40 3·40 6·50
日活·令孃殺し犯人 11·05 3·50 8·00
パ社ニュース 1·00 4·50 9·00
十三日の金曜日 1·10 5·00 9·10
午前中入場者割引致シマス
十四、五日特別サービス 村岡夢氏ナワ·トビタップ·ダンス公開!